

이자료는 지난 1월23일 日本 東京에서 열린 제 3회 太平洋지역에너지협력심포지움에서 李鳳瑞동 자부장관이 행한 기조연설 전문을 옮긴 <편집자 註>

原油에 變動價格帶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이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

본인은 太平洋 각 지역에서 오신 여러분과 함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몇가지 세계에너지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전의 SPEC 회의에도 전부 참석한바 있으며, 개인적으로 태평양에너지협력이라는 개념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만약 SPEC이 없었다면 태평양 에너지 비전에 대한 이해의 깊이나 수준은 현재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점에 대해 이회의를 조직하고 이끌어주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87년 3월의 지난 SPEC회의 이래, 세계에너지 시장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평온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란-이라크 전선의 종전은 아마도 이 기간동안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의 예측과는 달리 그것은 에너지시장의 근본을 심각할 정도로 변화시키지 않았습다. 油價는 여러가지 이유로 오르내렸으나 기본적으로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돌발사태가 없었다고 해서 이것이 현상고착의 지속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용하고도 근본적인 변화가 세계에너지산업의 저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 에너지 시장에 지속적으로 효과를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미래의 에너지와 경제구조에 대한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와 그것이 가지는 함축성에 대해 토론 하고자 합니다.



李 鳳 瑞

<동력자원부장관>

본인은 명백한 평온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에너지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몇가지 주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 함으로써 발표를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저개발국가(LDC)의 에너지수요증가에 관한 불확실성입니다. 경제성장률, 도시화, 비상업에너지원에서 상업에너지원으로의 전환증가, 이 모든것이 에너지수요증가에 대한 높은 잠재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떠한 범위로 그 가능성이 실현될까요.

둘째, 미래 에너지의 구성에 있어서 각 에너지원이 그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 원자력의 선택은 가용성이 입증될 수 있을 것인가.
- 원자력의 기술개발은 안전, 폐기물처리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 석탄은 石油와 재생에너지 간에 중간 역할을 할 것인가.
- 혹은 천연가스와 중간단계의 연료로서 석탄을 대체할 것인가.

세째, 에너지소비에 대한 최근의 산업재편성의 결과도 명확치 않습니다.

- 그 재편성이 어느 정도로 영구히 에너지 수요의 특성을 변화시킬 것인가.
- 얼마나 오래, 어느 범위로 그 재편성은 지속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선진 산업국가에서의 국내에너지 정책은 세계에너지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OPEC의 정책은 油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美國에 있어서의 주요정책 변화는 세계에너지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보호는 물론이고, 에너지 투자에 관한 규정과 유인책은 특별한 에너지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만, 이것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에너지 선택을 하려한다면 에너지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의 본질과 범위에 관한 불확실성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을 다루는데 있어서 시장기능이라는 것을 좀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은 소위 시장기능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세계油價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보다는 악화시켰다고 믿습니다.

시장기능의 보이지 않는 효용에 대한 일반적인 찬사와는 반대로 본인은 시장 그 자체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위한 명백한 조치가 시장의 원활한 활동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진단에는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너지 역사에는 제어없는 시장기능의 우리가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사후에 막대한 조정비용을 지불하고난 이후에만 교정되었던 변동과 왜곡을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화제를 바꾸어 세계에너지 사정에 있어 최근의 개발상황을 고찰해 봅시다. 최근 3년간은 에너지資源의 풍부함과 저렴한 에너지 가격으로 특징지워질 것입니다. 石油 1배럴당 가격이 10달러 수준 이하로까지 떨어지는 일도 산발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특히, 달러貨의 약세를 감안할 때, 배럴당 15달러 이하의 油價는 거의 생각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油價의 계속된 하락은 石油를 수입하는 국가의 거시경제적인 이익에 중요하게 공헌 했습니다. 美國, 日本 등 경제대국들이 그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혜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훨씬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韓國이 좋은 예입니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계속해서 3년동안 우리나라는 두자리 숫자의 실질 성장률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급속한 경제성장율로 유명한 韓國에서조차 역사적으로 선례가 없는 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초로 상당한 정도의 무역흑자를 경험했습니다. 만약 油價가 실제의 14달러 대신에 배럴당 34달러로 남아 있었다면 100억달러 무역흑자의 절반정도가 사라졌을 것이라는 것은 대략적인 계산으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低油價가 선진국, 개도국의 경제적인 변영에 도움을 주었지만, 또한 다른 불길한 징조를 보여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것은 石油소비 동향을 바꿔 놓았습니다. 80년대초의 石油소비 감소 추세는 끝나고,

石油소비는 1986년 이래 연간 1.8%의 비율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石油소비는 연간 2.7%의 비율로 증가했으며, 1980년대 동안 石油소비 증가의 40%나 차지하였습니다.

본인은 최근의 石油소비의 反戰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선진국, 개도국 양쪽에서 증가가 발생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비록 선진국에서의 증가의 일부가 복합연소설비에서 石油에로의 환원 때문이었지만, 그 대부분은 의심할 바 없이 에너지절약에 대한 사람들의 해이된 자제 때문이었습니다. 에너지절약은 현재의 에너지 여건을 형성하는데 유일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美國에서 신형차의 평균 효율은 갤런당 18 마일에서 지난 10년동안 28마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대중들이 대형차에 비해 소형차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동차 업체는 에너지절약형 차량을 공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낮은 油價로 대중들은 소형차보다 중전의 큰차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동차 업체는 연료 효율이 높은차를 연구하고 생산하는 인센티브를 잃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의 연구에 따른 영향이 끝나감에 따라 에너지 효율적인 차에 대한 현재의 자극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늘어나는 환경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이전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에너지의 선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환경요인 만으로도 천연가스와 보다 고급의 石油에 대한 수요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선진국이 원자력 선택의 유리점을 국민들에게 납득 시키는데 실패한다면 특히 그러할 것입니다. 드리마일 아일랜드와 체르노빌에서의 사고에서 야기되는 반대여론에 직면하여 스웨덴과 오스트리아에서는 현존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철거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탈리아와 그밖에 여러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 취소되었고, 적어도 그 건설을 최소화하는 계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석탄의 이용은 온실효과로 알려진 환경상의 위험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에너지소비와 소비절약, 연구활동에 대한 低油價의 영향이 간접적이며 점차적인 반면에, 石油생산에 대한 영향은 훨씬 직접적이며 뚜렷합니다. 油價가 낮을 때에는 한계 생산자들은 경쟁할 수 없으며, 유정은 폐쇄되어

합니다. 금융기관은 비용이 많이드는 유정을 생산하는데 대한 금융지원을 주저하게 되므로 새로운 유정을 개발할 수도 없게 됩니다. 최근 생산비가 배럴당 10달러 이상이면 美國의 독립적인 생산자들은 유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美國의 石油생산이 가장 현저하게 낮아져 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石油생산은 1985년에 일산최고 900만 배럴에서 최근에는 일산 약 800만 배럴로 줄었습니다. 대체로 저유가의 더 심각한 희생국은 OPEC보다 非OPEC회원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80년대 전반기에 연간 4% 비율로 증가하였던 非OPEC회원국의 생산은 1985년에 그 절정에 달해 일당 2,260만 배럴의 규모였습니다.

非OPEC 생산량의 쇠퇴와 세계적인 石油소비 증가의 결합은 OPEC에 대한 의존도를 다시 증가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1985년 이래 총 공급물량에서의 OPEC 세어는 다시한번 38%에서 약 40%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OPEC의 걸프 회원국들은 확인된 전세계 石油 매장량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세계 에너지공급원은 90년대쯤 언젠가는 中東 OPEC 공급국들에 극도로 집중될 것이 아주 명백한 실정입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는 자유세계 石油공급의 약 2/3를 OPEC가 조절하곤 했던 그당시로 되돌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OPEC는 세계 뉴스매체의 전면을 독점할 것입니다. 조금더 확실한 것은 OPEC의 가격정책입니다.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에너지가격의 단기 혹은 장기 전망을 취할 것인가, 다시말해서, 바로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듯이 역사가 똑같은 반복으로 다시한번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몇해동안 우리는 경쟁시장기능의 명백한 표시로 油價의 하락을 환영했습니다. 서구 제국에서는 「시장기능에 맡겨라」는 것이 국가에너지 정책에 중심구호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시장기능의 원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는 있지만, 새로운 질서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에너지 시장은 자유경쟁의 교과서적인 모델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지적할 필요도 없지만,

石油 방정식의 공급 측면은 소수의 생산국들에 의해 좌우되어 왔습니다. 그들의 공급 관리가 성공적이었느냐 하는 것은 추측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명확한 것은 공급자들의 정책행동이 石油상황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국들은 세계 石油시장에서 다소 결백한 방관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용하는 것처럼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은 아닌 것입니다. 몇몇의 생산자가 세계 비축량의 2/3 이상을 쥐고 있고, 그들이 개인보다는 단체로 행동하는 한 시장은 油價가 8달러이든 18달러이든 자유경쟁이 아니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어떤 가격도 시장결정(market solution) 으로서 규정할 수 없으며, 논리를 방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가 정책 결정자간에 그렇게 많은 신봉자를 얻었을까요. 나는 이것이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경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정책 행동은 장기 이익에 대한 기대 대신 높은 가격을 포함하는 확실한 눈앞의 고통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가들도 감히 그런 정책을 승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시장결정은 정책 부재에 대한 편리한 방패가 되었으며, 더우기 시장결정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의 지적인 만족을 가져 왔음에 틀림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OPEC 회원국의 생산량을 조절하는데 OPEC의 영향력을 재평가해 봅시다. 이것은 자유시장 원리에 대한 혐오스러운 위반으로서의 카르텔의 명백한 예로 공공연하게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OPEC가 1980년 최고 기록인 하루 2,800만 배럴에서 현 생산 수준인 2,000만 배럴로 산출량을 축소시키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를 가정해 봅시다. 非OPEC의 생산량과 합해서 총 생산량은 명백히 油價를 아마도 배럴당 5달러 수준으로 끌어 내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고 있는 배럴당 15달러 대신에 배럴당 30달러인 石油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정책 결과에 대해 우리는 토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70년대에 두번의 에너지위기를 야기했던 OPEC는 최근 몇년간의 OPEC와는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시장원리의 근본적인 기능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강조하는 것은 에너지에 대한 「정돈된 시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특별하고도 세계적인 협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에너지협력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 이상인 것이며, 필요한 것은 수출입국 간의 공감대 형성인 것입니다. 바람직스런 전세계적인 경제 성장을 위하여 선진국 간의 정책조정이 필요하듯이 세계油價안정을 위해 정책조정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石油소비국은 다른 여러 일차상품의 경우와 같은 시장협정을 체결하기위해 애쓰지 않았었습니다. 세계 경제에서의 石油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石油에 대한 협정의 추구노력이 결핍된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상품 협정의 실망스러운 성과는 石油에 있어서의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데 우리를 단념시킬 수 없습니다. 실제의 세계에너지 결정에서 유령과 같은 현물시장의 강력한 억압을 푸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몇년동안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의사전달의 부족은 생산자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머지않아 소비자에게도 똑같이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정면 경쟁은 회피되어야 하며, 협조가 아니라도 타협정신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石油 생산국 및 소비국의 정부는 石油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한데모여 힘을 합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油價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움직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균형가격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격대를 형성하는데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할 가치있는 의미있는 일인 것입니다. 더구나 일단 그들이 동의하면 그들은 그같은 동의를 실행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요 石油수입국에서의 대량의 石油비축은 관리 변동가격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유효한 조치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들은 주어진 가격 범위에서 소비자들이 따라올 수 있게 하기위해 여러 세계 조치를 현명하게 취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국으로부터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생산량 조절을 통한 산유국들의 일방적인 노력에 추가되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한 회의론자에 대하여 본인은 환율 안정을 위한 Group Six의 재무장관들의 노력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보다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로 외환시장을 유지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합하는데 동의하였으며, 그 시스템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잘 기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각국의 에너지 장관들이 주도하여 石油시장에도 비슷한 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환율과 석유가격을 관리하기 위한 합동노력이 있다면 두가지 모두에게 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를 주어진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본인은 태평양 이웃국가들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태평양 주변 지역에는 에너지 수입국·수출국이 다 존재하고 있으며, 태평양 지역에서의 에너지 협력 모델

은 세계적인 모델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SPEC회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SPEC은 정보의 흐름과 상호 의존정신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SPEC이 이미 성취한 토대위에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연구, 정책토론, 투자의 장려를 통하여 우리는 에너지 가격, 공급, 수요의 미래방향에 대한 공동 기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기대로부터 공동노력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노력이 나올 것입니다.

본인은 이 심포지움이 태평양 에너지협력 개념을 굳히는데 유효할 것임을 확신하며, 심포지움의 결과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발전시켜 줄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 해외단신 □

베네수엘라, OPEC 정책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

2월 2일부터 취임하게 될 베네수엘라 차기 대통령 Carlos Andres Perez는 석유정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 OPEC內 要人과의 친분관계, 적극적 외교능력을 동시에 갖고 있어 앞으로의 OPEC 정책에 주요한 흐름을 생성시킬 것으로 보인다.

Perez의 집권은 OPEC內에서의 베네수엘라 위치 상승, 국내석유산업의 정부개입강화 등을 촉진시킬 것이다. Perez는 지난 '74년부터 '79년까지 이미 한차례 집권한 바 있으며, 그 당시 임기중 OPEC정상회담을 개최, 베네수엘라 석유산업국유화 등이 이루어진 바 있다.

Perez는 국제석유시장에서의 OPEC지배력 회복에 강한 열의를 갖고 있으며, 당선이후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이란·이라크·알제리·UAE를 방문, OPEC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OPEC 창설멤버중 하나이며 현행쿼터는 163.6만 b/d, 1월 원유생산량은 165만 b/d이다. OPEC 내에서는 중간파로서 주요 조정역을 담당하는 수가 많으며, 예컨대 지난 84차 총회에서는 이란·이라크 이견조정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